

# 신인철학의 도덕관

로 학 희

신인철학은 1920년대에 리돈화에 의하여 제기된 조선근대철학조류의 하나로서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과 함께 도덕관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신인철학전반을 옳게 파악하자면 신인철학의 도덕관에 대하여 똑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행학설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인류사상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고 선행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5권 457페이지)

신인철학은 도덕관에서 도덕의 본질과 발생발전, 도덕의 원리와 도덕규범, 도덕수양의 방도 등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신인철학의 도덕관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도덕의 본질에 대한 견해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도덕(선)적인가 비도덕(악)적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천도자연의 진화법칙에 합치되는가 합치되지 않는가에 있다고 보면서 천도자연의 진화법칙에 합치되는 전적(전체)생활이 도덕적행위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은 이에 대하여 《자기의 생명 보존, 자손의 번영, 동포의 리익부조 즉 전적생활을 포용(포함)한것으로 되는것을 선이라고 부르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선은 오직 전적생활에서 볼만 하고 악은 오직 부분적생활에서만 나타나는것이니 이것을 말하여 인내천의 선악관이라고 한다.》(《인내천요의》 242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사람이 오직 먹고 후대만 남기는 생활밖에 모르는 동물과는 달리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개인만 살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전체를 위한 생활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신인철학이 《도덕생활이라는것은 자기 개인만 살기 위한 생활이 아니요 자기가 붙어사는 이 사회를 위하는 생활을 일러하는 말이다.》(《천도교교리독본》 110페이지)라고 한데서 잘 알수 있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자기보다 남을 먼저 리롭게 하고 개인보다 사회를 리롭게 하는것이 도덕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윤리적도덕이 어느 시대에든지 공익을 표준하는것은 변역치 않는다.》(《신인철학》 262페이지)라고 함으로써 도덕의 기준이 공익(공적리익-집단적, 사회적리익)인가 아닌가 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신인철학이 공익 즉 크게는 전인류, 작게는 자기 단체안에서 리익이 되는것을 도덕적인것으로 보았을뿐아니라 전적생활에 선이 있고 사회를 위한 생활이 도덕적인 생활이며 사회를 리롭게 하는것이 도덕이라고 주장한것은 바로 도덕의 본질을 전체를 위하는것으로 이해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신인철학은 전체를 위하는것을 도덕의 본질로 이해한데로부터 사람들사이에 서로 협동하고 서로 부조하는것을 누구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으로 보았다.

이것은 신인철학이 서로 협동하고 서로 부조하는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리롭게 하는 도덕을 리상화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신인철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량심과 리성을 가지고 행동규범들을 반드시 지키는것을 도덕으로 보았으며 윤리적규칙 즉 규범화된 윤리도덕을 습관적으로 지키는데 바로 동물에 비한 인간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의 도덕관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도덕의 발생발전에 대한 견해이다.

신인철학에서는 도덕의 발생근원이 《한울》 즉 우주전체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말하여 만물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로서 모여서 사는 과정에 도덕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인철학은 《...도의 소재는 개체보다 종속에서 찾을수 있고 종속보다 그 종속을 내게 한 한울의 전적성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응용의 도리(도덕의 리치)에 있어서도 그것을 개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속전체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도의 가치가 나오는것이다. 도는 전적에 있고 고립에 있지 않는것을 알수 있다. 전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여부에서 도의 존재여부를 체험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62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도덕의 발생문제를 도덕의 가치문제와 결부시켜보았으며 역사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견해 즉 도덕의 발생근원을 개체에서 찾는 견해와 전체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되어왔다고 하였다. 이 두가지 견해에서 신인철학은 두번째 견해 즉 도덕의 발생근원을 전체에서 찾는 견해를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은 자연계에도 도덕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자연계의 도덕 즉 천도천덕이 점차 변화되면서 인간도덕으로 발전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신인철학은 이에 대하여 《천도천덕은 자연계에서 밝아지는것이 아니요 인간계에 와서 처음으로 크게 성공이 되고 광명이 되었다.》(우와 같은 책 255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도덕이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감별력과 선과 악의 광명, 사회적이 환경이 도덕의 변화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감별력이란 행위의 도덕성을 구별해보는 능력 다시말하여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가 혹은 비도덕적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감별력의 강약에

따라 사람들의 인격에서 차이가 생기고 도덕적행동이 좌우된다.

신인철학에서는 일반생활표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선과 악의 표준도 달라지고 따라서 도덕이 변화된다고 보았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이 선 또는 악으로 고정되어있는것으로 리해하게 되면 결국 도덕이 고정불변한것으로 보게 되는 모순점에 떨어진다.

신인철학은 도덕이 인간의 내적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사회적환경, 사회제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것으로 리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인철학은 《사람의 본성은 본래 무선무악한것인데 밖에 있는 사회적환경의 작용에 따라 선도 될수 있고 악도 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65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의 도덕관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도덕의 원리와 도덕규범에 대한 견해이다.

신인철학에서는 도덕의 원리를 《경》으로 보았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사람의 리타적인 행위 즉 다른 사람 또는 사회를 위한 행위와 사회적정서(감정)가 인간의 미덕으로 되며 이러한 인간의 미덕을 《경》, 이 한글자에 귀납시킨것이 바로 도덕의 원리로 된다.

신인철학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행위에 두가지 즉 리기적인것과 리타적인것이 있는데 그가운데서 리타적행위가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인철학은 《세상에는 리기의 행위와 리타의 행위가 있는바 리기적행위는 누구든지 사람의 본성과 같이 생각하나 리타의 행위는 그중 변태로 보는 폐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인간만사를 세밀히 고찰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리타적행위가 되지 않는것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우와

같은 책 274~275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사람의 리타적행위가 노동과 사회적정서에서 표현된다고 보았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순한 개인의 총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호상작용(경제, 교육, 도덕, 정치, 기타 일체관계)에 의해 결합된 유기적체제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하여 노동하게 된다. 이것은 신인철학이 개인이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람의 응당한 도덕적행위로 이해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신인철학은 사람의 리타적행위가 노동에서뿐만아니라 사회적정서인 군성(전체를 중요하게 보고 그의 이익을 위하는 성질), 동정성, 애정, 애국심, 희생심 등에서도 표현된다고 보았다.

신인철학에서는 《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존경》(경천, 경인, 경물)의 도덕규범을 제기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사람들의 도덕적행위는 도덕규범을 지키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신인철학에서는 《경천》을 첫째가는 도덕규범으로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경천》이란 우주자연의 법칙에 대하여 경외지심(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경천》의 의의는 인간의 품성을 키우고 인간격을 높인다는데 있으며 진리로서 전인류의 관념과 리상, 의지를 통일시켜 장래에 보게 될 《지상천국》의 예비조건을 마련하게 한다는데 있다. 즉 《경천》의 의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며 한집안처럼 사는 리상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

신인철학에서는 《경인》을 중요한 도덕규범으로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경인》이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것을 말한다.

《경천》이 관념상행위로서 내적행위에 속한다면 《경인》은 외적행위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신인철학은 《경인》을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 즉 모든 사람을 다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문제로 보면서 제도, 환경을 《한울》로 개조할것을 제기하였으며 복종이 아니라 반항에서 도덕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경물》을 중요한 도덕규범으로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경물》은 천지만물을 공경하고 사랑하는것을 말한다.

신인철학은 《경물》의 내용을 자연공경, 동물공경, 식물사랑으로 보았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사람이 자연을 공경하여야 하는것은 사람이 자연과 밀접히 연결되어있을뿐만아니라 자연이 인간생명의 원천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동물을 공경하여야 하는것은 동물이 자연의 일부이기때문이며 사람이 식물을 사랑하여야 하는것은 경제, 문화발전이 산과 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신인철학의 도덕관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도덕수양의 방도에 대한 견해이다.

신인철학에서는 도덕수양의 방도로서 《수심정기》를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은 《수운주의의 료리도덕률을 개성의 방면에서 관찰한다면 ... 개인의 정신적방면에 있어서는 <수심정기>가 곧 그의 도덕률의 최고행위가 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68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 말하는 《수심정기》란 마음을 지키고 기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수심정기》는 물질적활동이나 정신적활동의 어느 한편에 치우친 도덕수양이 아니라 인간격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삼는 도덕수양 즉 인간격중심의 도덕수양이다. 《수심정기》는 인간을 비렬한 동기로부터 해방

시키는것 다시말하여 동물적본능의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적최고생활, 우주생활을 하게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우주생활은 맹목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신적자각생활이며 동물적본능의 생활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활, 문화도덕적인 생활이다.

신인철학은 《수심정기》의 수양이 경전을 통한 수양을 강조하는 불교나 유교와는 다르며 사람 자신이 적극적태도를 취하게 하고 자력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도로서 도덕교육(덕교)문제를 제기하였다.

신인철학은 도덕교육이 지식교육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하면서 지식교육과 함께 최고인간격의 교육인 도덕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도덕교육 즉 인간격의 교육이란 인격과 인간격의 합치를 보장하는 교육이며 인간에게 합법적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을 하여야 인류가 물질적패락과 함께 고상한 정신도덕생활을 하는 이상적인격 다시말하여 인간격의 경지에 이룰수 있다.

이처럼 신인철학에서는 도덕관을 자기

의 구성체계의 하나로 설정하고 많은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신인철학의 도덕관은 시대적, 역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신인철학은 도덕의 본질에 대하여 그것이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며 계급사회에서 도덕이 계급적성격을 띠뿐아니라 도덕이 민족적특성을 가진다는데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다.

신인철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행동규범으로서의 도덕이 사회공동생활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어느 사회에서나 도덕의 발전은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신인철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이 진보와 반동을 가르는 정치적기준으로 될뿐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는 도덕적기준으로 된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도덕의 기능과 역할문제에 대해서도 옳바로 밝히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 신인철학은 추상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초계급적인 도덕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머문 역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